

기초학력 향상 위한 교육활동 지원 · 교육복지사업 확대 추진 등에 '중점'

도교육청, 내년 예산 4조6787억원 편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1일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8.16% 증가한 4조6,787억 원이다.

이에 앞서 김필중 예산과장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 △학생 건강·안전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확대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2년도보다 7,780억원(22.7%) 증가한 4조 1,99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300억원(8%) 증가한 4,066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는 81억원(12.5%)

올해보다 8161억원 증액... 도의회 제출

증가한 731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32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869억원 △교육복지 2,468억 원 △보건·급식 2,21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643억원 △학교시설여간개선 4,885억원 △평생교육 157억원 △인건비 1조 9,777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5,448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미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7,401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6만 4,595대) 등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형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에 983억원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에 106억원, 교과교실제 여건 개선에 167

억 원,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간 조성 지원에 53억원, 창의 예술 미래공간 설립과 운영에 127억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등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수선에 31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70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8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 정비 및 학생복지 사업을 위해 5,065억원을 편성했다.

두드림학교 운영 등 학생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58억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 58억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에 119억원,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147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312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북미래학교 운영 지원에 41억원, 학생 국제교류 확대 지원에 38억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교복구입비 지원에 각각 162억원과 104억원을 편성했다.

세번째로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5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학교 방역비 지원에 116억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상담 치유 지원에 79억원,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구강건강 진료 지원 등에 71억원을 편성해 학생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7억원,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에 20억원,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등 교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5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성장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700원 인

상(식품비 500원, 운영비 200원)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1,6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5.4%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2,282억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98억원을 편성했고, 학교 신·증설비는 2024~26년도 개원(교) 예정인(가칭)전주문정유치원 외 9개원(교) 신설에 708억원, 전주화산초 외 9개교의 학교증설에 73억원 등 모두 87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1.7%)과 호봉승급(1.83%)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조3,699억원(전체예산의 51%)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취업콘셀(ssult)' 성료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에서 개최한 '2022 취업콘셀(ssult)트-여전히 빛나는 나, 비긴어게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취·창업 준비하는 재학생과 지역 청년 및 주민들에게 유망기업들을 소개하고, 멘토링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역 밀착 참여형으로 진행됐다.

또한 진로 고민을 소재로 한 재즈 보컬 버스킹 공연에 이어 지역기관과 주민이 운영하는 섬유 향수 제작, 미니화분 체험 키트 시연과 같은 체험존이 마련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아나티그룹·KT&G·(주)한우물 등의 관계자들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취·창업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청년들에게 성공 노하우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우석대학교 동문이자 패널리스트 KT&G 상상유니브 오승용 대리는 "재학 중 급급한 많은 사회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며 "우석대학교 졸업생으로서 후배들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큰 꿈을 펼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지역 청년의 채용 연계를 통한 인재 확보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중3 담임교사 고교학점제 이해 제고

도교육청, 14~15일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4~15일 이틀 간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세미나실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고교학점제 이해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교육 정책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진로 및 진학지도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됨에 따라 중

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변화되는 고교 교육과정을 안내해 진로 연계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14개 시·군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211명이 참여, 전주·군산·익산·정읍 권역과 김제의 9개 시·군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은 "2023년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에 대비해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증진을 통해 예비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및 진학지도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지난 10~11일 '디지털·AI 시대의 미래교육' 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강사로 초청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교육정책 협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서 2022년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 편입학 제도 정부 차원 개선을

거점국립대총장협, 정기회의 열고 현안 안건 논의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서 2022년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협의회 대학 총장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전북도 김중훈 청문장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현안에 대한 안건 협의와 교육부와의 대화, 특강 등이 이어졌다.

이날 거점국립대학들은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규제 완화를 비롯해, 설계직접성(조달청) 검토 지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총장단과 교육부 간 대화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던 수도권 편입학 문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가뜰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편입학 증가가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통로가 되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거점국립대학 총장단은 국가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학 편입학 제도에 대한 정

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한편 안건 협의 이후에는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김용근 부소장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시민 교과목에 대한 거점국립대 확대 방안을 담은 ESG 시대 기업시민 교과목 거점국립대 운영 소개 특강이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거점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동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우리 거점국립대학들은 미래와 직결되는 심도 있는 고민들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고, 이러한 고민들은 고등교육 재원 확보 방안과 더불어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여러 담론들이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변화하는 미래교육 이해도 높인다

전북교육연수원, '디지털·AI 시대의 미래교육' 연수 성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실현 위해 김관영 도지사 강사로 초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지난 10~11일 '디지털·AI 시대의 미래교육'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 교원장 및 교육전문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사야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미래, 우리의 교육 △미래학교 공간의 이해와 실

제 △교육과정에서 마주하는 미래형 교육공간 등 미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교육정책 협력 과목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균형발전, 전북 교육정책 협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 특강은 연수원 개원 이래 처음이며,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교육청·지자체의 상시 정책협력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학교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지자체, 지역대학, 중앙정부, 국회 등과 탄탄한 교육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병기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교(원)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협치를 통해 지역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보훈요양원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10일 AI뉴테크에서 전주보훈요양원과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보훈요양원 박진기 원장 이재만 복지부장, 정광민 복지과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김미선 과목실장, 육필훈·서현정 아동복지과 교수, 김재현 간호학부 학부장, 전주주물리치료학과 학과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회사업(위탁, 설립)의 공동 제안 및 운영 지원, △자원봉사 및 현장실습 지원, 학생 특강 및 기관 견학 지원,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 취업과 연계된 제반 활동에 협력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박진기 원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0-2021년 전국 전문대 취업률1위(졸업생 천명 이상)라는 전주비전대학교와 돌봄 관련 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 현장실습 등 산학전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은 "취업지도 및 고용관련 교육 등에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전주보훈요양원과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원데이 캠퍼스 투어' 예비 신입생들에 호응

사전 접수 일주일만에 50개 학과 100여명 학생 신청

전주대학교 '원데이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이 사전 접수 일주일 만에 50개 학과 100여 명의 학생이 신청하는 등 예비 신입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입학처에서 마련한 '원데이 캠퍼스 투어'는 대학 입학에 앞둔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수님과 지원학과에 대한 소개와 체험을 하는 1:1 맞춤형 상담과, 스타센터(도서관)와 스타타워(기숙사) 등 교내 시설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원데이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민서(백화여고) 학생은 "가정교육과에 지원했는데 모집요강 등 책자로 제공된 학교나 학과에 대한 소개 자료 외에 내가 지원한 학과의 강의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과정 편성이나 대학 생활에 대해 학과 교수님과 1:1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정은성 기자

니 지원한 가정교육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며 "대학 생활과 캠퍼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벌써부터 대학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원데이 캠퍼스 투어를 통해 본인이 지원한 학과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지, 조기가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전주대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데이 캠퍼스 투어의 사전 신청은 입학처 지원자 본인 및 지원자의 학부모, 교사, 친구 등 전주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년 2월 23일까지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www.jiac.kr/iphak>)나 전화(063-220-3235)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